

『여인의 초상』과 『대사들』에 나타난 상상력

: 21세기에 요구되는 자질*

이원주**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상상력의 의미와 제임스가 상상력을 함양한 배경
3. 이사벨이 지닌 상상력의 의미, 한계와 진보
4. 스트레더가 지닌 상상력의 의미, 한계와 진보
5. 나가는 말

【국문초록】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대변되는 21세기에 상상력은 필수적인 자질로 요구된다. 실상 상상력은 편견과 오해로 인해 혼동을 야기하는 모호한 개념으로 의미의 재정립을 필요로 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1437)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객원교수

다. 그런데 비평가이자 소설가인 헨리 제임스(Henry James)는 상상력의 의미, 가치와 중요성을 문학작품을 통하여 구현한다. 요컨대 그는 『여인의 초상』(*The Portrait of a Lady*)과 『대사들』(*The Ambassadors*)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두 주인공의 행보를 통해 시행착오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이사벨 아처(Isabel Archer)의 낭만적인 상상력은 현실에 기반한 상상력으로 발전하여 대결과 재도전으로 이어지고 램버트 스트레더(Lambert Strether)의 억압된 상상력은 공감, 도덕성, 통합하는 능력으로 나아간다. 바로 이러한 점들은 21세기에 요구되는 자질인 상상력과 결부된다. 제임스는 두 주인공의 사례를 통해 삶의 현장을 상상력을 함양하는 장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인 상상력을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해안으로 시사한다.

주제어: 헨리 제임스, 상상력, 시행착오, 경험, 현실에 기반한 상상력, 공감, 통합, 도덕성

1. 들어가는 말

21세기는 상상력의 성과인 최첨단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간 개념을 재상정한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시기이다. 대중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미지 전달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정보사회인 이 시대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이 된다. 초연결사회의 다변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격랑 속에서, 현시대는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하며 상상력과 그 소산물인 창조성과 독창성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또한 통섭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이 시대는 학제 간 교류를 통해 폭넓은

지식을 망라하여 결합하는 통합적 사고능력을 요구한다. 이른바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통합을 지향하는 현 세대는 상상력의 가치를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며 시대적 요청으로 표방한다.

그런데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그동안 강조된 심층적 전문 지식의 문제점을 적시한다. 즉, 그는 특화된 전문화를 오히려 “상상력을 없애고 전문 분야 밖으로 나서지도 못하며 생각조차 두려워하는 개인을 양산하는”(147)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창의성 분야의 권위자인 마이클 미칼코(Michael Michalko)는 “전문 지식이 세분화되면 될수록 상상력은 더욱더 제한된다”(9)라고 부연한다. 홍명희는 일상에서 “짜구려 이미지들의 수동적 소비자가 되어 미학적 판단 기준과 창조적 상상력을 상실”(89)한 현대인의 난관을 토로한다. 역설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기계·물질문명은 상상력의 성과인 동시에 인간의 정신과 사고를 쇠퇴하게 하여 상상력 발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더 나아가 급변하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자질로 급부상한 상상력은 해석의 다양성과 모호성을 내포하여 혼란을 가중한다. 실상 상상력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을 마음속으로 그려 보는 힘’이다. 상상력의 어원은 라틴어 ‘판타지아’(phantasia)의 이전 대응어이며, ‘판타지아’는 그리스어 ‘팬시’(fancy)에서 유래한다. 파생어가 있는 두 용어는 “오랫동안 이미지를 받거나, 이미지를 형성하는 능력 혹은 과정을 지칭하는 동의어”(Preminger, 371)로 언급된다. 하지만 상상력과 이미지는 어원상의 인과 관계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¹⁾

상상력에 대한 사회통념은 예술가와 시인, 극소수의 천재만 전

1) 이미지라는 개념이 지닌 시각적 특성, 즉 시각적 이미지의 연상이 지나치게 강하여 이미지는 곧 그림이라는 도식이 성립되고, 상상력과 분리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이미지도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박치완, 3).

유하는 천부적 자질로 치부하거나 기존의 것을 모방하고 조합하여 재현하는 능력으로 본다. 혹은 상상력은 모두가 공유할 수 없는 난해하며 기이한 것으로, 환영이나 망상과 같이 비이성적이거나 주관적이며 추상적인 개념 또는 도덕과 규칙의 지배와 제약을 받지 않는 활동으로 오인된다. 문예 부흥기인 르네상스 시대에 상상력은 “육체적 감각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모든 동물이 공유하는”(Brooke, 94) 특징으로 폄하되었다. 심지어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는 상상력을 “열정의 지배하에서 현실로부터 소외, 광기, 혼미, 정신 착란과 직결되는”(216) 개념이며 “광인, 연인과 시인의 공통점”(231)으로 규정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취지는 불명료한 상상력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고 그 가치를 숙고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제임스의 『여인의 초상』과 『대사들』²⁾을 중심으로 상상력의 의미와 가치를 고찰한다. 먼저 본고는 여러 비평가와 철학자가 정의하는 상상력의 의미를 살펴본 후에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활약한 제임스가 미래 지향적인 상상력 연구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개진한다. 그 후에, 제임스의 삶을 개괄하여 그가 상상력을 함양한 배경을 조망한다. 연이어, 본론에서 이 연구는 두 작품의 주인공 이사벨과 스트레더의 행보를 추적함으로써 그들에게 부여된 상상력의 의미, 한계와 진보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제임스가 주장하는 상상력의 의미, 상상력의 함양 방법과

2) 임정자의 「Henry James의 이상적 삶의 비전」이라는 선행연구는 『여인의 초상』, 『비둘기의 날개』(*The Wings of the Dove*), 『황금잔』(*The Golden Bowl*)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논문은 제임스의 이상적 삶의 비전을 구체적인 현실 체험을 바탕으로 한 도덕성을 내면의 자질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시대의 필수적 자질인 상상력의 총체적인 의미를 작가 제임스의 개괄적인 삶과 『여인의 초상』과 『대사들』을 중심으로 거론함으로써 차별성을 지닌다.

수준을 가늠하여 필요성을 노정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21세기에 응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상상력의 의미와 제임스가 상상력을 함양한 성장 배경

서양 문명은 이원론, 이성과 합리주의에 기초한 역사이므로 상상력, 이미지와 감성은 거짓과 오류로 경시된다. 이런 까닭에 언어 철학자 마크 존슨(Mark Johnson)이 지적하듯이, 상상력은 “예술, 환상, 창조성과 관련된 것이거나 지각과 이성을 연결하는 능력”(The Body, 141)으로 양분화되어 인식된다. 그동안 상상력은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에서 르네 데카르트(Rene Descartes), 데이비드 흄(David Hume)과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를 거치면서도 온전한 인간의 의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정신활동이었다. 하지만 18세기 낭만주의자들이 인간의 정신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명명하여 이를 신의 창조 행위와 동일시한 점은 그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 낭만파 시인이며 문학 이론가 새뮤얼 테일러 코올리지(Samuel Taylor Coleridge)는 상상력을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힘이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힘”(5)으로 정의한다.

20세기에 이르러서, 상상력은 제대로 된 평가와 가치를 인정받아 본격적인 연구로 이어진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는 열등한 하위 기능으로 폄하된 상상력의 위상을 지각 기능과 사유 기능을 포함한 의식의 수준으로 격상시킨다. 이미지론과 동일시되는 그의 상상력 이론의 핵심은 “의식 속에 이미지가 없으며 오히려 이미지는 의식의 어느 한 유형으로, 하나의 행위이지 하나의 사물이 아니며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사르트르, 228)이다. 이미지란 “순수한 의식이며, ‘사물’이 아닌 지각하는 의

식과 대등한 위치에서 동일한 존재론적 지위를 누리는 상상 의식”(사르트르, 10)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그림이나 사진의 물질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여 물질적 성질이 부여된다. 그러나 사르트르에게 이미지란 하나의 의식이며 정신의 산물이고 그 자체로 인간의 온전한 의식행위가 된다. 요컨대 상상력 혹은 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오성에서 유래”(사르트르, 31)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과학철학자이며 문학비평가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업적은 상상력을 학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은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의 연구 이전까지 상상력은 기존에 경험한 현실을 재생하거나 재현하는 능력으로 폄훼되었다. 그런데 바슐라르의 연구는 상상력을 “단순한 재현적 이미지를 유도해 내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능력이며 모든 인간 능력의 창조적 원동력”(홍명희, 7)이라는 관점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미갈코는 상상력을 “기존 개념이나 범주라는 틀에 박혀 있지 않은 것”(3)으로 간주한다. 존슨은 상상력을 “경험을 이해하고 유의미하도록 일깨우는 능력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간의 합리성, 즉 중요한 연결을 찾고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능력에 절대적으로 핵심적”(The Body, 168)인 것으로 삼는다. 임정택은 21세기의 화두인 상상력을 “아주 이질적인 것들을 꿰어맞추는 능력”(106)으로 기술한다. 이처럼 상상력은 디지털 지식정보시대에 고전적 의미의 상상력, 즉 비가시적인 것을 표상하는 능력에서 더 나아가 여러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이해된다.

주목할 바는 제임스가 55년 동안 소설, 연극, 비평문, 기행문과 같은 다양한 장르를 망라한 작가일 뿐만 아니라 상상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피력한 문학 비평가라는 사실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상상력이 부재한 경험은 작가를 불구로 만든다”(The Art, 76)는 것이다. 그는 또한 “삶 그 자체가 예술의 소재이며, 예술은 삶의 상상적 표현, 즉 상상력에 기초한 삶을 투영해야”(The Art, xlv)한

다는 작가로서의 소신을 표명한다. 다시 말해 제임스는 “소설가의 작품이 상상력의 도가니를 통과해야만”(The Art, 230) 일상 경험의 소재가 유의미한 것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평가 대니얼 슈나이더(Daniel J. Schneider)는 제임스를 “상상력의 개발에 확고한 입장을 취한 상상력이 풍부한”(9) 작가로 평가한다. 엘리저베스 스티븐슨(Elizabeth Stevenson)은 소설을 창작하는 데에 있어서 제임스를 “경험의 폭은 협소하지만 거리낌 없이 상상력을 관찰의 영역에 적용”(22)한 일례로 본다. 앤 노튼(Ann V. Norton)은 제임스의 소설을 “개인의 과거, 문학에 노출, 성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은 남녀의 잘못된 상상력을 탐구하는”(25) 주제로 요약한다. 이러한 논평은 상상력에 관한 제임스의 작품을 21세기에 요구되는 능력인 상상력과 접목하여 연구할 필요성과 유효성을 제기한다.

실상 인간은 자신이 속한 환경, 문화, 관습, 교육과 같은 여러 외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특히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인 유년기에서 청소년기에 받은 문화적 충격은 평생 흔적을 남기게”(홍명희, 41) 된다. 제임스는 이 시기에 미국적 환경, 즉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조부 윌리엄 제임스 시니어(William James Sr.)의 부를 바탕으로 한 학구적인 집안에서 성장한다. 그는 4남 1녀 가정의 차남으로 1843년에 출생한 지 6개월 만에 가족과 유럽 여행을 떠나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유럽을 오가며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누린다. 신동운은 “어릴 때부터 여행을 많이 한 아이가 상상력이 풍부한 이유는 보고 들은 것이 많아 연상 작용할 데이터가 다양하기 때문”(72)이라고 밝힌다. 이처럼 영유아기부터 경험한 유럽 여행은 제임스가 성인이 된 이후에 장기 해외 체류로 귀결되고 작품의 주소재가 된다. 더욱이 신학자, 강연자와 작가로서 여러 제자를 둔 제임스의 부친 헨리 제임스 시니어(Henry James Sr.)는 “뉴욕과 뉴잉글랜드에서 존경받는 지역의

명사”(The Untried Years, 36)로 활약하며 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에서 저명한 실용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또한 작가 제임스의 삶에 자극제가 된다. 어린 시절에 제임스는 형제간의 경쟁 구도에서 형의 사교성, 재능, 적극적인 행동력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상상 속에서 항상 형처럼 되는 것”(The Untried Years, 63)을 갈구한다. 그는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내성적 기질, 즉 한계를 수용하여 이를 “상상력으로 대체”(The Untried Years, 64)한다. 심지어 그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부모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낭만적 고아 신세의 환상으로 표현되는 절대적 상상의 자유”(Kaplan, 34)를 갈망한다. 일상에서 제임스는 “관찰의 즐거움과 상상력이 함께 하는 고독한 산책의 기쁨”(Kaplan, 17)을 향유하고,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신동운, 77)이 되는 “글쓰기와 독서”(Kaplan, 35)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부친의 서재와 할머니 댁에 구비된 다양한 책들 가운데에서, 그는 “예술과 예술가에 관한 책”(The Untried Years, 64)을 탐독한다.³⁾ 상상력을 함양하는 또 다른 일환으로, 제임스는 부친이 권장한 연극 관람을 극장에서 즐긴다. 그의 부친은 연극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공유하고 자녀들에게 문화적 오락과 마음의 교육”(Kaplan, 23)을 위한 수단으로 권고한다.

특이하게도, 제임스는 부친의 자유로운 양육 방침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당대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와 학교라는 제도와 무관하게 성장한 일례가 된다.⁴⁾ 자신

3)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 윌리엄 새커리(William Thackeray),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셰익스피어는 어린 시절에 제임스의 상상력의 세계에서 빛을 발하는 인물들”(Kaplan, 23)이었다.

4)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지칭되며 다방면에 다재다능한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덕분에

의 불행한 어린 시절로 인한 부친의 자유분방한 양육 방식은 자녀들에게 독립성과 자유를 부여하는데, 이는 제임스의 상상력 발현에 보탬이 된다. 프랑스 교육학자 닐 포스트먼(Neil Postman)은 “공식적인 제도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가 탄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유영만, 61)라고 논평한다. 즉, 학교 교육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사람들의 생각을 재현 혹은 모방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배제한 채, 학교는 “기존의 가장 잘될 것 같은 접근방식을 분석적이며 논리적으로 선택하여 해결”(Michalko, 4)하도록 종용한다. 학교는 규칙이나 규율의 준수를 요구하며 주입식 암기 교육과 하나의 정답을 유도하는 수동적 교육을 제공하여 무비판적 사고로 연결되고 자유로운 발상을 저지할 소지를 내포한다.

이뿐만 아니라 제임스는 지란지교를 통하여 지적인 자극을 받는다. 1858년에 토마스 서전트 페리(Thomas Sergeant Perry)와 존 라파제(John La Farge)와의 교제는 “중요한 시기에 제임스에게 마음과 정신을 길러주는 역할”(The Untried Years, 142)을 한다. 그보다 두 살 연하의 소설가 페리는 “아이디어와 책을 끊임없이 교환할 수 있는 친구”(The Untried Years, 143)이다. 반면에 파제는 제임스보다 7살 연상의 화가로, “깨달음을 제공하는 멘토와 안내자”(The Untried Years, 142)가 된다. 그는 제임스에게 오노레 드 발자크(Honore de Balzac)와 같은 작가의 예술과 프랑스 문학을 소개하고 문학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일조한다. 코즈모폴리턴으로 알려진 제임스의 이상, 즉 궁극적 목표는 “다양한 지적 융합과 통합”(The Untried Years, 265)을 이루는 것이다. 달리 보면,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여 이를 내면화하고 결합 혹은 통합하는 능력이야말로 21세기에 요구되는 자질인 상상력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한다.

오히려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Michalko, 9)한 다른 예시가 된다.

3. 이사벨이 지닌 상상력의 의미, 한계와 진보

『여인의 초상』의 이사벨은 1870년에 사망한 제임스의 사촌 미니 템플(Minny Temple)의 사후 9년 만에 “영원한 꿈의 창조물”(The Untried Years, 331)로 부활한 여주인공이다. 그녀는 제임스의 미니에 대한 “기억의 창의적 변용이며 미국 여성의 비유적 표현”(Kaplan, 468)이 된다. “활발한 상상력”⁵⁾과 “독립적 성향”(55)을 특징으로 하는 그녀는 자유와 독립을 갈망한다. 그런데 이사벨의 어린 시절은 여러 면에서 제임스의 과거와 중첩되어 묘사된다. 예컨대 그녀는 14살이 되기 전에 3번의 유럽 여행을 하여 견문과 시야를 확장하고 부친의 자유분방한 양육 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성장한다. 그녀는 이모 터쳇 부인(Mrs. Touchett)과 영국으로 건너가서 유럽 여러 곳을 누비고, 마담 멀(Madame Merle)과 동행하여 그리스, 터키, 이집트를 3개월 동안 다니며 세상 곳곳을 일 년 동안 여행한다. 이처럼 낯선 문화, 장소, 사람을 접하게 되는 여행은 상상력 훈련의 장이 된다.

더 나아가 이사벨이 제대로 된 공교육을 받지 못한 점 또한 제임스의 어린 시절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며 그들의 공통점이 된다. 그녀는 첫날에 학칙에 항의하며 등교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유모와 가정교사에게 일임된다. 편부 슬하에 자유롭게 성장한 이사벨은 제도화되고 획일화된 학교 교육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셈이 된다. 그 결과는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는 출발점이 되며 틀린 생각이라도 자기 나름의 견해와 관점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 어릴 때의 제임스처럼, 이사벨은 간접 경험의 방법인 독서를

5) Henry James, *The Portrait of A Lady*, ed. Robert D. Bamberg. (New York: Norton, 1975), p. 39 이하 텍스트의 인용은 괄호 속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통하여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을 해소하며 상상력을 함양한다. 이처럼 책을 매개로 독자가 작가의 의식,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여 마음속에 이미지화하는 과정은 상상력을 샘솟게 하는 방안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독서를 통해 이사벨이 얻은 “지나치게 많은 이론”(51)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관념적이며 단편적인 지식의 파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녀의 지식은 실생활에 적용되어야 하고 권위자를 통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 수정 혹은 보완을 필요로 한다.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젊은이들의 “책으로만 배워서 실제 경험이 없는 독서광의 폐단”(109)을 언급한다. 즉, 그는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대신에 책 그 자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독서광의 문제를 시사한다. 이와 함께, 이사벨은 주변인들에게 “당연히 외국으로 가야 하는 이국적인 인물”(38)로 인식되며 “대단한 박학, 즉 번역이지만 고전을 읽을 정도의 인물”(38)로 평가된다. 그들의 과도한 칭찬으로 인해 그녀는 스스로를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로 착각하여 독단적 자신감을 품고 자신의 결점을 직시하지 못한다.

또 다른 문제로서, 이사벨은 문학을 매개로 “불쾌한 것”(33)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단지 흥미와 교육의 원천거리”(33)로만 생각한다. 물론 독서는 이사벨에게 간접적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 되며 호기심, 지적 욕구, 자기계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⁶⁾ 그렇지만 그녀의 상상력은 현실성이 결핍된 낭만적 성향을 지니며 가끔 제어되지 않는 한계를 노출한다. 예컨대 그녀는 어린

6) 에드워드 와겐넥트(Edward Wagenkecht)는 이사벨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삶의 실제보다 샤를 고노드(Charles F. Gounod),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 조지 엘리엇(George Eliot)에 의해 길러졌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85)라고 설명한다.

시절에, 아버지가 딸들을 돌보도록 고용한 프랑스 하녀와 러시아 귀족의 도망 사건을 낭만적 일화로 기억한다. 삶의 고통을 상징하는 유령이라는 존재는 그녀에게 낭만적 대상일 뿐이며, 세상은 낭만적 상상력을 펼치는 장밋빛을 띤 곳으로 공주와 왕자만이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세계이다. 워버튼 경(Lord Warburton)과의 첫 만남에서, “귀족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했는데 소설과 똑같아요!”(27)라는 그녀의 발언은 이러한 사실을 재차 증명한다. “영국신사의 표본”(69)인 워버튼 경의 대저택 로클리(Lockleigh)는 “전설 속에 나오는 성”(75)이다. 마담 멀은 “프랑스인, 신분이 높은 독일 출신의 남작 부인, 백작 부인, 공주”(154)와 같은 존재이며 오스먼드(Gilbert Osmond)는 “추방당한 이국의 왕자”(214)가 된다.

더욱이 ‘성공’이란 이사벨에게 “젊은 시절의 꿈을 실현하는 것”(174)이며 ‘행복’은 “캄캄한 밤에 아무도 볼 수 없는 도로에 네 마리 말이 이끄는 달가닥거리는 재빠른 마차”(146)처럼 낭만적이고 추상적 개념으로 인식된다. 이텔은 이사벨의 행복에 대한 의미를 “소설을 읽은 소녀의 발상”(The Life, Vol. 1. 617)에서 연유한 것으로 설명한다. 반면에 현실적인 성향을 지닌 헨리에타 스택폴(Henrietta Stackpole)은 이런 견해에 대해 “부도덕한 소설의 여주인공”(146)과 같은 발언이며 “자신만의 꿈의 세계에 지나치게 빠졌다”(187)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또한 “무척 까다롭고 고상한 망상을 너무 많이 해”(188)라고 부연하며 이사벨의 취약점에 비판을 가한다. 이처럼 헨리에타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이사벨의 상상력을 망상으로 간주하여 그 위험성을 경고한다. 강현식은 ‘망상’이란 “반대되는 정보, 명백한 증거와 권위 있는 사람의 설득으로도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왜곡된 신념”(150)으로 규정한다. 유영만은 “일상에 대한 관심과 관찰에 근거하지 않은 상상은 헛된 망상과 무의미한 망상으로 끝난다”(73)라고 주장하며 현실에 기초한 상상력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와 아울러 그는 “남들이

비웃는 꾀짜같은 상상이나 바보같은 상상일지라도 일단 실현되고 나면 이상이 되는 법”(73)이라며 상상의 의미를 환기시킨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사벨은 뉴욕 주 알바니(Albany) 할머니 집에서의 무료한 삶을 사교 모임과 같은 외부 활동을 배제하고 독서에만 치중한다. 그녀는 빗장이 잠긴 문을 열어 보거나 들창의 초록빛 종이를 벗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단절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독서를 통하여 자신만의 상상력의 세계에 몰입한다. 샤마(J. N. Sharma)는 알바니 집에서 보이는 이사벨의 행동을 “세상에 대한 무경험, 이론에 치우치는 성향, 비현실적이며 지나친 상상력과 같은 독특한 개성과 고립성”(81-82)을 보여주는 일례로 든다. 이사벨의 이러한 행동은 “반대쪽에 어린아이의 상상력에 환희나 공포의 영역이 되는 장소가 있을 거라는 그녀의 이론과 배치될지도”(33) 모른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처사이다.

프랑스 미디어 이론가 폴 비릴리오(Paul Virilio)는 상상력을 “어린아이의 세계로 귀화하려는 성숙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낙원”(유영만, 21)이라고 서술한다. 아이는 천진함과 무한한 호기심에서 어떤 제약 없이 상상력을 펼치는데, 이사벨 또한 어린이처럼 세상을 견지하는 면모를 보인다. 그녀는 타인들과 의사를 소통하여 인간에 대한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에만 편중된 방식을 고수한다. 여기서 비롯된 그녀의 순진함은 타인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태한다. 어찌 보면 상상의 세계에 몰입하는 이유는 불만족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현실 도피를 하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다. 상상력이 지배하는 세계는 개인이 지닌 지식을 초월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있고 불안과 스트레스가 제거된 곳이다. 이사벨이 할머니 집을 떠나 이모를 따라 영국으로 이동하게 된 일을 “불만스럽고 구속하는 갇힌 상태에서 더 충만하고 더 자유롭고 유의미한 삶으로의 탈출”(Chase,

121)로 생각하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암시한다. 게다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와 상상력의 세계가 상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이사벨의 처신은 타인의 내적 동기를 간파하지 못하게 하며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가든 코트로의 물리적 이동은 이사벨의 한계를 더욱 부각하여 표출하며 시련의 장이 된다. 상상력의 근간이 되는 경험 부족은 세상에 내재한 악에 대한 무지와 연결되는 동시에 타인에게 기만당하는 요인이 된다. 물론 그녀는 두 명의 구혼자, 즉 위버튼 경과 굿우드(Caspar Goodwood)와의 결혼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깨닫고 청혼을 거절한다. 유럽 문화를 대표하는 귀족인 위버튼 경과 결혼은 명예, 부, 권력을 소유할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큰 우리 속에 갇힌 사나운 동물”(100)처럼 속박된 삶은 그녀의 상상과 괴리가 있는 삶이다. 그녀는 “세상을 자유롭게 둘러보겠다는 여태 품어왔고 당장 누릴 수 있는 기분 좋은 계획(101)”과 상반되는 정형화된 귀족의 인습적 삶을 거부하여 청혼을 거절한다. 반면에 뉴잉글랜드 보스턴 출신인 굿우드는 방직공장을 운영하는 부유한 실업가로서 강한 남성미와 위협적이고 무시하는 자세로 인해 그녀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 그의 목표지향적이고 융통성 없는 태도와 단순하며 직선적인 성격은 이사벨의 상상력을 작용하지 못하게 하며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도로시아 크룩(Dorothea Krook)은 “굿우드에게 내재된 독단과 지배, 비인격적인 모습과 영향력을 여성의 낭만성과 편안함을 저해”(34)하는 요인으로 지목한다.

그런데 세 번째로 등장한 오스먼드는 “금화와 같은 고귀한 이미지”(197)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주조된 우아하고 정교한 메달”(197)과 같이 특이성과 희소성을 지닌 까다로운 취향의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한다. 마담 멀의 지시에 따라, 그는 첫 만남에서 이사벨에게 진귀한 예술 소장품을 보여주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

신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그 결과, 이사벨은 그를 “환상의 미궁”(198), “특별한 부류의 인물”(224)과 “괴짜가 아니면서도 독창적 인물”(224)로 오인한다. 오스먼드의 실체는 인간을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심미주의자이며 딜레탕트(dilettante), 즉 예술적인 재능 없이 감식력만 지닌 아마추어 예술애호가일 뿐이다. 이처럼 이사벨의 환상에서 비롯된 허상은 오스먼드를 개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남성으로 착각하게 한다. 콜린 메이스너(Collin Meissner)는 오스먼드를 “이사벨의 상상력의 산물”(108)로 평한다. 이사벨과 오스먼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마담 멀은 “교양의 화신”(454), “사교술의 여왕”(216), “유럽 최고의 여성 중 한 사람”(169)으로 칭송받을 정도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내는 여성”(155)이다. 이른바 “완벽한 사회적 동물”(167)인 마담 멀은 “나도 저렇게 돼 봤으면!”(165)이라고 감탄할 정도로 이사벨의 모방 욕구를 촉발한다. 사실 그녀는 자신의 환상을 마담 멀에게 투영하여 미화한 것이다.

결국 이사벨이 지닌 한계는 “인습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인습 그 자체”(265)인 오스먼드의 일부를 전체로 오판하게 한다. 알란 벨링저(Alan W. Bellringer)는 “인간관계에서 소수의 지인들과 몇 명의 대표적 친지들로 제한된 이사벨의 한계와 취약성”(62)을 오스먼드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한다. 주변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사벨은 상속받은 유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오스먼드)를 구원하는 신의 역할”(357)을 하는 기부자가 되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된 듯한 착각에서 결혼을 감행한다. 그리고 그녀는 결혼으로 “암흑의 집, 침묵의 집, 질식의 집”(360)에 갇히는 처지가 된다. 오스먼드는 그녀를 자신의 생각에 종속된 조력자가 되도록 종용함으로써 그녀의 상상력을 억압하여 통제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 왜냐하면 이사벨의 실패한 결혼을 “오스먼드의 세련된 외양을 실제로, 공허함을 고결한 청렴함으로 착각”(89)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더욱이 그녀의 취약성은

“과도한 외양에 대한 관심, 인생보다 예술, 경험보다 이론을 선호하는 본성”(Wagenkencht, 89)에 기인한 것이다.

소설의 42장에 이르러, 산책 후 귀가한 이사벨은 응접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오스먼드와 마담 멀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면서 관계의 진실을 뒤늦게 자각한다. 새벽 4시의 명상은 사고전환과 성찰의 기회가 되며, 의식의 전환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된다. 요컨대 그녀는 보이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여 추론하게 된다. 이것이 상상력의 힘이며 이 시점에서 이사벨의 상상력이 한 단계 발전한 것임을 입증한다. 이제 그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 현실 속에 공존하는 삶의 본질, 즉 선과 악, 죄와 고통을 절감하고 현실에 바탕을 둔 상상력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사벨은 수녀원에서 조우한 마담 멀의 “능란한 달변”(458)에서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영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과거와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임종을 앞둔 램프의 병상에서 그녀는 그동안 고통을 겪고 참혹한 경험과 지식을 획득한 결과, 마침내 개안하여 유령을 목도한다.

많은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는 소설의 결론 부분에서 이사벨은 불행한 결혼을 종식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의 기회, 즉 굿우드의 청혼을 재차 거절한다. 헨리에타의 만류와 간섭에도 그녀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결혼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오스먼드가 있는 로마행을 선택한다. 빅토리아 조 여성으로서 이사벨은 실패한 결혼을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하고 정면돌파하기 위해 로마행을 감행한다. 빈센트 블레을(Vincent E. Blehl)은 이사벨의 행복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고통으로부터 탈피하여 성취될 수 없는 것”(380)으로 본다. 윤충의는 상상력을 “현실 도피가 아닌 대결을 지향”(249)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임정택은 상상력을 “억압을 뚫고 해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능력”(38)과 동일시한다. 그동안 발휘한 이사벨의 낭만적 상상력이 불행의 원

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상하지 않는다면 장차 다가올 새로운 기회마저 사라지게 된다. 오히려 그녀는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현실에 기반한 상상력의 힘으로 역경에 굴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녀는 진일보한 상상력의 힘으로 자진하여 로마행을 선택함으로써, 재도전하여 새로운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를 표명한 셈이다.

4. 스트레더가 지닌 상상력의 의미, 한계와 진보

『대사들』의 주인공 스트레더는 “제임스의 자화상과 같은 인물”(“A Bundle of Letters,” 52)로서 지성, 분석력, 감수성과 예술가적 기질을 겸비한 원숙한 남성이다. 다른 미국인들과 구별되는 특권으로 그는 “축복받은 상상력”(The Art, 316)을 부여받는다. 그는 열성과 초연함, 무관심과 호기심이 공존하는 “이중성격”⁷⁾과 더불어, 의식이 동시에 두 가지로 작용하는 “묘한 이중의식”(18)과 복시(double vision)를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스트레더의 상상력은 “울렛(Wollett)과 파리의 상반되는 것을 수용하고 상황의 양면을 고려”(Stallman, 49)하게 만든다. 그의 풍부한 상상력은 “단 하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뉴섬 일가와 구별되는 속성”(Stallman, 50)이 된다. 복시는 “호기심과 무관심의 혼합물이며, 감수성은 모든 예상되는 계획 앞에 놓인 뜻밖의 일과 예상치 못한 일에 적응하도록 훈련”(Stallman, 49)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스트레더는 미국에서 55세에 이를 때까지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삶에 허덕이며 낙오자의 인생

7) Henry James, *The Ambassadors*, ed. S. P. Rosenbaum (New York: Norton, 1964), p. 55 이하 텍스트의 인용은 괄호 속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을 살아간다. 그는 초로에도 물질적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약혼녀이자 재정 후원자인 뉴섬 부인(Mrs. Newsome)에게 의지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갓출 것은 골고루 다 갖춘 완전한 실패자”(40)라고 한탄하며 불행한 삶을 영위한다. 그는 미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 중 하나”(60)가 될 만큼 지친 상태로 성공 지향적이고 물질만능주의적 가치에 매몰되어 분주한 일상을 보낸다. 성공한 변호사 웨이마쉬(Mr. Waymarsh)는 과로 증상으로 신경쇠약 증에 걸려 영국에서 요양 중이다. 절친한 스트레더와 웨이마쉬는 직업적인 압박감과 피로감, 여러 이유로 그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5년 만에 영국에서 상면한다. 이처럼 격무에 시달리는 삶은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환경이 된다.

스트레더를 비롯한 다른 미국인들, 즉 뉴섬 부인과 포콕 부처(the Pococks)는 “전통의 감옥”(Stallman, 51)인 울렛 출신으로 엄격한 미국 청교도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스트레더는 뉴잉글랜드 양심을 대변하는 엄격한 청교도의 특징인 높은 도덕성과 강한 책임감을 대변한다. 그는 “양심의 부담을 예리하게 느끼는 유형”(93)으로 뉴잉글랜드의 억눌린 양심과 죄에 대한 강박증을 보인다. 청교도 사회인 뉴잉글랜드 울렛의 절대적 가치는 이분법적 기준으로 협소하고 수동적이며 획일적 사고로 귀결된다. 울렛은 “규정된 가치와 인습이 존재하는 곳으로 모두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없는 곳”(The Life, Vol. 2, 417)이다. 요컨대 울렛은 상이한 의견을 용납하지 않고, 타자의 다름 혹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전체주의 사회와 같은 곳이다.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A Bundle of Letters, 52)로 양분화하는 미국적 상황에서, 일률적이고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규범이나 이분법 논리는 상상력을 함양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한 행동 양식과 생활 양식의

총체인 ‘문화’는 “상상력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고 아무런 선별 작업 없이 받아들일 때 상상력의 방해물”(홍명희, 41)이 된다. 이처럼 통제와 제약이 많고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곳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은 고갈된다. 올렛의 배타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트레더의 풍부한 상상력은 억압되어 움츠지 못하며 감수성 또한 가로막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스톨먼은 스트레더의 감수성이 차단된 이유를 “올렛의 도덕적 압력”(51) 때문이라고 본다.

이 소설에서 거론만 되는 뉴섬 부인은 “도덕적 압력”(276)을 행사하는 억압의 메커니즘으로 상상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된다. 동시에 “실체가 없는 화신”(Hardwig, 119)인 뉴섬 부인은 스트레더에게 “육체적 존재가 아닌 정신적 존재”(Hardwig, 120)로 인식된다. 그는 파리에서도 “그녀의 말소리가 주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60)라고 여길 만큼 정신적 압박감과 강박감을 느낀다. 즉, 뉴섬 부인은 그의 의식에 각인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경의 대상이다. 이텔은 뉴섬 부인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로 부동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집착하여 성장한 후에도 개인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한다”(The Life, Vol. 2, 417)고 비판한다. 특이한 점은 지적인 유대로 결속된 스트레더와 뉴섬 부인의 남다른 관계이다. 그녀가 파리에 체류하는 아들을 귀국시킬 임무를 스트레더에게 맡기며 결혼으로 안온한 노후를 보장하는 약속에서, 그들의 관계가 조건부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 관계는 뉴섬 부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상하 위계식 구조임을 시사한다. 그들의 평등하지 않은 관계, 즉 수직구조는 사건을 제시하거나 상상력을 자극하기 힘든 구조이다.

그런데 스트레더가 뉴섬 부인에게서 부여받은 대사의 임무는 인생의 대격변을 겪게 하는 사건으로, 나중에 스스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자평할 정도로 내면의 변화를 촉발한다. 임무의

핵심은 가업의 후계자 채드(Chad Newsome)의 배후 존재를 파악한 후, 그를 설득하여 귀국시키는 일이다. 채드와 비오네 부인(Madame Marie de Vionnet)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은 스트레더의 상상력을 움트게 할 뿐만 아니라 개안케 하여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게 하고 의식의 확장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며 코즈모폴리탄으로 변모케 한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리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는 올렛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과 내적 갈등을 겪기 시작한다.

예컨대 스트레더는 룩셈부르크 공원(Luxembourg Gardens)에서 과거에 신흥여행으로 온 유럽 여행을 자기계발과 “더 높은 교양을 쌓기 위한 기회”(62)로 삼았던 젊은 시절을 회고하며, 부지불식간에 휴면기 상태인 감각과 상상력을 소생하여 발화시킨다. 연이어 그는 루브르(Louvre) 박물관을 방문하고 사색과 공상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한다. 이 시간은 과거 신흥여행에서 그가 얻은 “한 줌의 씨”(62)를 파리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발아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비릴리오에 의하면, 상상력이란 “없는 것을 배워서 생기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 잠자고 있는 가능성을 흔들어 회복시키는 것”(유영만, 21)이다. 이상오는 상상력을 “주변 환경의 자극 내지 영향 속에서 발휘”(81)되며, “독립된 외톨이거나 홀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현되며 상호 영향권 속에서 공진화(coevolution)”(107)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트레더는 유럽에서 사귄 최초의 여자 친구이자 조력자인 마리아 고스트리(Maria Gostrey)의 도움으로 열린 사고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틀에 박힌 사고에서 탈피한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은 넓고 날이 갈수록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마련”(150)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올렛에서 온 순례자”(268)로서, 파리에서 “풍습의 관찰자”(152)와 같은 태도를 취하며 매사에 호기심 많은 관찰자가 되어 신·구대륙의 문화와 예법의 차이점을 비교·대조하고 유럽의 감각적 매력에 매료되어 생경한 경험을 한다. 무엇보다

도 스트레더는 무례한 시골 청년에서 세련된 외모, 취향과 예법을 구사하는 “파리 토박이”(219)로 변모한 채드의 변화를 단박에 알아차린다. 그는 채드의 변모를 기적이라고 여기며 그 내막을 알고자 하는 충동과 호기심, 선망의 감정을 품는다.

그런데 뉴섬 부인의 두 번째 대사인 포콕 부처가 채드의 변모를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입장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들은 채드의 변화를 비오네 부인의 “관심의 결과이며 천재적 소양의 산물”(231)로 치하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은공으로 채드의 가치가 “다섯 배”(337) 올라간 사례로 격찬하며 옹호하는 스트레더의 변화된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결과, 스트레더는 파리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처럼 오해받고 매도당하여 뉴섬 부인과 절연하게 된다. 물론 처음에 스트레더는 채드의 배후에 있는 여성을 “저속한 돈을 우려내는 창녀 출신”(45)이라는 뉴섬 부인의 추측에 동조하여 관계의 진실을 묵도하기 전에 예단한다. 하지만 “빈틈없는 성격”(92)을 지닌 스트레더는 유럽에 도착한 이후, 결론을 잠시 유보하며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마리아가 “누구든 사실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다”(44)라고 항변하듯이, 뉴섬 가 사람들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엥매인 정신의 소유자”(199)인 웨이마쉬 또한 유럽에 대하여 방어적이고 폐쇄적 사고를 견지한다. 이처럼 선입견으로 인한 편향과 오류는 지적인 시각을 가로막고 진실을 호도하게 한다.

삶에서 축적된 경험은 상상력과 창조성의 원료가 되지만 많은 경험과 편중된 지식의 결합은 오히려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분명한 목적의식, 의지, 호기심과 열정을 사라지게 한다. 고정관념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이 지니는 신념으로, 주관적이며 왜곡된 지식이다. 이처럼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고정관념은 “그 내용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한 집단에 대해 일반화된 신

념”(강현식, 476)이다. 미칼코는 “고정관념을 형성한 개념, 즉 틀에 박힌 생각은 분명한 비전을 차단하고 상상력을 몰아낸다”(83)라고 설파한다. 편견은 “한 집단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는 부정적 태도로서, 특히 소수 집단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강현식, 476) 생각이다. 다시 말해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즉 편향된 사고이다. 존슨은 편견이란 “분명하게 보는 능력을 가로막는 믿음 혹은 발상이며 지적 시각과 통찰력을 모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맹목적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관점을 제한함으로써 사물을 그 본래의 모습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믿음”(Moral Imagination, 225)이라며 비판을 가한다.

웨이마쉬와 포콕 부처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점철되어 둔감해진 결과, 채드의 변모를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채드의 변화된 모습은 그들에게 “다행스런 발전”(279)이 아닌 오히려 “끔찍한”(280) 변화일 뿐이다. 그들은 유럽을 단지 향락의 장소로 간주하여 “환락의 지식”(253)을 만끽하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다. “뉴섬 부인의 대변자”(193)로서 유럽에 온 사라(Sarah Pocock)와, 웨이마쉬는 처음에 고결한 도덕성을 지닌 것처럼 보였지만 무책임하게 처신하며 일시적인 도덕적 일탈을 즐기는 위선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웨이마쉬는 마리아로부터 “보기 흉한 바람둥이”(243)라는 비판을 받는다. 존슨은 “규칙이나 도덕 법칙에 의존하는 사람을 삶의 불확정성이나 우연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나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Moral Imagination, 215)이라고 명시한다. 이와 함께 존슨은 “규칙에 열중하는 것은 도덕적 실패의 징조이며 즉 모든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법, 약속한 것을 행할 수 없다”(Moral Imagination, 215)라고 밝힌다. 유럽에서 진면모를 드러낸 미국인들의 위선적 행태와 시각은 스트레더에게 환멸과 모멸감을 주며 청교도적 가치관에 의구심을 품게하는 발단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뉴섬 일가는 처음부터 채드와 비오네 부인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반면에 스트레더는 순결한 관계로 오인하여 12장으로 이루어진 소설의 11장에서 진실을 만각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스트레더의 한계는 급작스러운 채드의 등장을 예상치 못하여 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그의 외형상의 변모를 직시하는 데에 식견과 분별력의 부족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그는 “깊이를 잴 수 없는 매체”(108)인 채드의 변모를 협소한 울렛의 가치와 기준으로 견지하여 도덕성으로 오인한다. 그의 실수는 내면과 외양을 구별하는 데에 난해함과 복잡성,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는 유럽에 울렛의 가치를 적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스트레더는 착시로 인해 오인된 “환영”(331)에 불과한 채드의 변화를 내면의 변화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한다. 패트리샤 유아트(Patricia Euart)는 ‘착각’을 “주관적인 지각 과정의 창조물(9)”로 정의한다. 니콜라 브래드베리(Nicola Bradbury)는 스트레더의 착각을 “뉴잉글랜드의 도덕적 판단의 체계를 파리의 상황에 적용하려는 시도”(476)라고 본다. 더욱이 스트레더의 특징인 풍부한 상상력은 채드의 변모를 가져온 비오네 부인을 고상한 존재로 이상화한다. 예컨대 그의 상상력은 “사교계의 여성”(160)인 비오네 부인을 “바다의 여신과 요정”(160)과 “옛날의 프랑스 판화나 역사적 초상화”(262)와 연결한다. 심지어 그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비오네 부인을 관능성과 열정을 지닌 “클레오파트라”(160)와 연관시킨다. 노플마처(U. C. Knoepfelmacher)는 비오네 부인에 대한 스트레더의 첫인상을 “여태껏 만난 여성들과 다른 상상에만 존재하는 인물로 굴절된 결과물”(337)로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주변인들의 평가도 스트레더의 오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여성 마리아는 스트레더의 사고 전환에 기여하는 동시에 진실을 만각하게 하는 데에도 일조한다. 그녀는 비오네 부인을 “남자들의 모든 연령에 맞는 여자”(140)이

며 “완전무결한 여성”(291)이라고 칭찬하여 혼동을 주고 진실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바라스 양은 비오네 부인을 “50명의 여자”(157)와 “명료함과 신비로움이 혼합된 여성”(230)으로 극찬한다. 빌렘은 채드와 비오네 부인의 관계를 “아름다운 우정”(168)이자 “도덕적으로 순결한 애정”(112)으로 순화한다. 스트레더는 빌렘의 친구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는 “단지 기술적인 거짓말”(330)을 곧이곧대로 믿는 실수를 범한다. 그리고 그는 “채드는 희생을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충분한 희생을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165)라는 빌렘의 발언을 숙고하지 못한다.

결정적으로 스트레더는 노트르담 성당에서 조우한 비오네 부인의 참배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난 후, 채드와 비오네 부인의 관계를 우정으로 단정한다. 비오네 부인은 천한 여성일 것이라는 처음의 추측과 달리, 스트레더가 “특별한 사람들”(138)로 여기는 귀족 출신으로 “보기 드문 존재”(146)이다. 맥스웰 가이즈마(Maxwell Geismar)가 지적하듯이, 백작의 아내인 비오네 부인은 “유럽 문화의 최상위 산물”(102)이다. 스트레더에게 비오네 부인은 “로맨틱한 존재”(174)이며, “심미적, 지적, 사회적, 역사적 감각을 충족시키는 존재”(The Notebooks, 392)인 셈이다. 무엇보다도 스트레더는 대화술과 처세술에 능한 비오네 부인의 이중성을 간파하지 못한다.

그러나 스트레더는 “백마정”(305)이라는 여관 근처 강에서 뱃놀이즐기는 채드와 비오네 부인의 모습과 복장에서 단서를 포착한다. 우연히 만난 비오네 부인은 프랑스어로 “탁월한 연기”(312)를 하지만 채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조적인 태도를 취한다. 스트레더는 호텔로 돌아온 후, 한두 시까지 그 장면을 회상하며 상황의 양면성과 전체를 관망하는 통찰력으로 착각과 환상에서 깨어나게 된다. 철학자이며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ey)는 상상력을 통해 “많은 반성적 사유를 하게 되며 그러한 반성적 사유 속에서 통찰력과 직관력이 나온다”(이상오, 108, 재인용)라고 밝힌다. 상상

력은 숨겨진 본질을 간파하는 능력으로, 통찰력과 직관력의 근저에 내재한다. 나중에 스트레더는 자신의 오인을 “기묘한 무지와 오해 그리고 혼란”(277)에서 초래된 결과로 자평한다.

앞서 언급한 다른 미국인들과 구별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인 “너그러운 사고방식”(310), 즉 스트레더는 자신을 기망하고 배신한 사람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는 스스로를 “밟살스러운 인간”(324)이라며 “젊은 사나이에게 버림받고 울고 있는 하녀”(323)처럼 인간적인 면을 보이는 비오네 부인을 용서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임스에게 ‘성숙함’이란 “성품과 상상력”(The Art, xli)을 뜻한다. 스트레더를 통해 보여주는 제임스의 상상력은 “공감(empathy)과 사랑으로서 낭만파들의 상상력에 대한 견해와 유사성”(Norton, 20)을 띤다. ‘공감’이란 “상상력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며 상상력의 부족은 공감의 부족”(Norton, 21)을 의미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스본은 상상력을 “심상(mental images)을 형성하는 힘이 아니라 경험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어 공감하는 마음의 힘”(208)으로 기술한다.

더 나아가 스트레더는 뉴섬 부인과 절연을 하면서도 채드에게 비오네 부인과 헤어지는 일을 “짐승”(336)과 같은 “과렴치한 행위”(343)이며 “극악무도한 죄인”(336)의 처사라며 귀국을 저지한다. 그러나 “대사업가가 될 소질”(341)을 지닌 가업의 상속자 채드는 둔감한 감수성, 상상력의 부재, 무감각한 양심과 부도덕함을 지닌 기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뿐이다. 그와 달리, 스트레더는 안온한 노후를 보장하는 마리아의 청혼까지 거절한다. 미국과 유럽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 스트레더의 최종 결정은 과도한 도덕성을 표명하는 처사로 볼 수 있다. 스티븐슨은 이러한 처신을 “상상력과 동일시되는 도덕성”(61)의 결과라고 평한다. 데이비드 브로미치(David Bromwich)에 의하면, 도덕성과 상상력은 “상호관계를 지니며 둘 다 인간의 공감 능력과 관계가 있는”(3) 개념이 된다.

궁극적으로 스트레더는 상반된 유럽과 미국 문화의 전체적 융합을 도모하는 성숙한 인물로서 점층적으로 확장되는 상상력의 결과물인 통찰력으로 다양한 상황과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혜안을 지니게 된다. 대니얼 포겔(Daniel Mark Fogel)이 거론하듯이, 스트레더의 상상력은 “정반대의 조정(reconciliation)⁸⁾이라는 코울리지의 원리”(5)를 토대로 한다. 즉, 스트레더에게 부여된 ‘코울리지의 이차적 상상력’은 “재창조하기 위해 융해시키고 분산시키고 소멸하며, 이상화하고 통합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Fogel, 25) 것이다. 그는 대비를 이루는 신·구대륙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상호보완하고 결합하여 사고의 확장을 이룬다. 이른바 상상력은 “이미 있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결합시켜 보려는 발상”(이상오, 81), 즉 “융합하는 기술, 네트워크 능력”(임정택, 107)인 것이다. 이제 스트레더는 신·구 문화의 양극성을 통합하고 흡수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중국에 스트레더는 유럽에서 “공감 능력의 확대, 통찰력의 확장, 날카로운 분별력, 새로운 생활 양식의 확장으로 인해 초로의 젊음”(Stevenson, 61)까지 얻게 된다. 그는 미국에서 청빈한 삶을 살지만 예전의 삶과 다르게 인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 즉 상상력의 자유를 삶에서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된다. “상상

8) 코울리지는 일차적 상상력(primary imagination)이란 인간의 모든 인식의 살아있는 힘 또는 일차적 동인으로, 무한한 절대 자아(the infinite I AM)의 영원한 창조 행위가 유한한 정신 속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본다. 이차적 상상력(secondary imagination)은 일차적 상상력의 반복이자 메아리이며 자각하는 의지와 공존하며 일차적 상상력과 동일한 종류의 동인이며, 작용 정도와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재창조를 위해 융해되고 확산하며 분산하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상화하고 통합화하려고 노력이다. 코울리지의 이차적 상상력은 시인과 예술가의 창조적 상상력과 동일시된다(Osborne, 224).

력이 풍부한 남성”(299)인 스트레더에게 자유란 마음껏 사색할 수 있는 상상의 자유인 것이다.

5. 나가는 말

주지하다시피, 빠른 변화와 여러 도전이 존재하는 21세기는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하며 상상력과 그 산물인 창조성과 독창성을 생존과 혁신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표방한다. 특히 이 시대는 여러 지식을 총망라하여 융합하는 통합적 능력이자 자질인 상상력의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한다. 더 나아가 이 시대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방안을 찾도록 장려한다. 그런데 19세기 중후반부터 활약한 제임스는 상상력의 산물인 소설을 매개로, 잘못된 상상력을 주제로 하여 그 개념을 재정립하며 함양 방법과 수준까지 제시한다. 바로 이러한 점들은 복잡다단한 21세기에 요구되는 자질인 상상력과 연결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해, 제임스는 이사벨과 스트레더에게 다른 미국인들과 구별되는 특징이자 공통적 자질로서 지성, 풍부한 상상력, 호기심과 도덕성을 부여한다. 물론 소설에서 의도적인 설정일 수 있지만, 인간 고유의 선천적인 사유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은 이사벨과 스트레더에게만 주어진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권인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소신을 따른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그들은 삶에 내재된 속성인 이중성을 간과하여 진실을 만각하게 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예컨대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이사벨의 낭만적인 상상력은 주변의 영향에 취약하게 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여 불행한 결혼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스트레더가 지닌 상상력은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에 기반한 것이지만 협소

한 울렛의 가치와 기준을 유럽에 그대로 적용하여 오인한 결과, 기만당하게 하는 데 일조한다.

실지로 이사벨과 스트레더가 지닌 상상력은 제도나 기관에서 학습이나 훈련을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몸소 터득하여 발전을 거듭한 결과물이다. 이사벨의 낭만적인 상상력은 독서의 산물로서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인 면을 지니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 현실에 기반한 상상력으로 발전하고 실패에 대한 재시도와 도전 의지를 표명하는 단계로 진일보한다. 스트레더의 억눌린 상상력은 유럽 문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레 발화한다. 유럽에서 그는 사고의 폭을 확장하여 열린 사고를 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또한 그의 상상력은 통찰력, 도덕성, 공감과 통합 능력, 삶과 인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식견을 가지게 되는 수준으로 나아간다. 제임스는 두 주인공의 사례를 들어 인간이란 직·간접적인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삶을 부단히 수정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상상력이 없는 유의미한 경험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James, Henry. *The Ambassadors*. Ed. S. P. Rosenbaum. New York: Norton, 1964.

_____. *The Portrait of A Lady*. Ed. Robert D. Bamberg. New York: Norton, 1975.

2. 논문

Blehl, Vincent E. "Freedom and Commitment in James' s *The Portrait of a*

- Lady.”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42,3 (1961): 368–81.
- Bradbury, Nicola. “‘The Still Point’: Perspective in *The Ambassadors*.” *The Ambassadors*. Ed. S. P. Rosenbaum. New York: Norton, 1994. 473–501.
- Emerson, Ralph Waldo. “The American Scholar.” *Great American Essays*. Eds. Norman Cousins and Frank Jennings. New York: Dell, 1967. 104–23.
- Euart, Patricia Mary. “The Theme of Betrayal in the Fiction of Henry James.” Diss. Brown U, 1975. Print.
- Geismar, Maxwell. “The Achieved Life à la Henry James.”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 of The Ambassadors*. Ed. Albert E. Stone J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9. 96–105.
- Hardwig, Marilyn Ross. “Henry James’s American Males in Europe: Roderick Hudson, *The American*, *The Ambassadors* and *The Golden Bowl*.” Diss. U of Tennessee, 1978.
- James, Henry. “A Bundle of Letters.” *The Short Stories of Henry James*. Ed. Clifton Fadiman. New York: Modern Library, 1945. 39–81.
- Knoepflmacher, U. C. “O Rare for Strether!: Antony and Cleopatra and *The Ambassadors*.” *Nineteenth-Century Fiction* 19,4 (1965): 333–344.
- Norton, Ann V. “Anita Brookner Reads Edith Wharton and Henry James: The Problem of Moral Imagination.”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29,1 (2010): 19–34. Tulsa: U of Tulsa.
- Stallman, R. W. “The Sacred Rage: The Time-Theme in *The Ambassadors*.” *Modern Fiction Studies* 3,1 (1957): 41–56.

3. 단행본

- 강현식. 『꼭 알고 싶은 심리학의 모든 것』. 서울: 소울메이트, 2010.
- 박치완 외.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바슐라르와 뒤랑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 사르트르, 장 폴. 『사르트르의 상상력』. 지영래 역. 서울: 기파랑 에크리, 2008.
- 유영만. 『상상하여 창조하라』.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8.
- 윤충의 외. 『직관과 상상력』. 서울: 국학자료원, 2011.
- 이상오. 『상상력과 교육』. 서울: 강현출판사, 2014.

- 임정택, 『상상: 한계를 거부하는 발칙한 도전』, 파주: 21세기북스, 2011.
- 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서울: 살림, 2005.
- Brooke, Nicholas, *A Dictionary of Modern Critical Terms*, Ed. Roger Fowl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3.
- Bromwich, David, *Moral Imagination*, Princeton: Princeton UP, 2014, electronic resource.
- Chase, Richard, *The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 London: The Johns Hopkins P, 1980.
- Coleridge, Samuel Taylor, *Biographia Literaria or Biographical Sketches of My Literary Life and Opinion*, Eds. James Engell & W. Jackson Bate, Vol. 2, Princeton: Princeton UP, 1983.
- Edel, Leon, *Henry James: The Untried Years, 1843-1870*, London: Rupert Hart-Davis, 1953.
- _____. *The Life of Henry James*, Vol. 1, Harmondsworth: Penguin, 1977.
- _____. *The Life of Henry James*, Vol. 2, Harmondsworth: Penguin, 1985.
- Fogel, Daniel Mark, *Henry James and the Structure of the Romantic Imagination*,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81.
- James, Henry, "The Art of Fiction," Ed. James E. Miller, Jr., *The Theory of Fiction*, Lincoln & London: U of Nebraska P, 1962.
- _____. *The Art of the Novel*, Ed. R. P. Blackmur, Boston: Northeastern UP, 1984.
- _____. *The Notebooks of Henry James*, Eds. F. O. Matthiessen and Kenneth B. Murdock, New York: Oxford UP, 1961.
- Johnson, Mark, *The Body in the Mind*, Chicago: U of Chicago P, 1990.
- _____. *Moral Imagination*, Chicago: U of Chicago P, 1993.
- Kaplan, Fred, *Henry James: The Imagination of Genius*, New York: Morrow, 1992.
- Krook, Dorothea, *The Ordeal of Consciousness in Henry James*, New York: Cambridge UP, 1967.
- Meissner, Collin, *Henry James and the Language of Experience*, Cambridge: Cambridge UP, 1999.
- Michalko, Michael, *Creative Thinkering*, Novato: New World Library, 2011.
- Osborne, Harold, *Aesthetics and Art Theory*, New York: E. P. Dutton, 1970.

- Preminger, Alex.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Princeton UP, 1965.
- Schneider, Daniel J. *The Crystal Cage: Adventures of the Imagination in the Fiction of Henry James*. Lawrence: Regents, 1978.
- Shakespeare, William. *A Midsummer Night's Dream*. Ed. Peter Holland. Oxford: Clarendon P, 1994.
- Sharma, J. N. *The International Fiction of Henry James*. New Delhi: MacMillan, 1979.
- Stevenson, Elizabeth. *The Crooked Corridor*.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1.
- Toffler, Alvin and Heidi Toffler. *Revolutionary Wealth*. New York: Knopf, 2006.
- Wagenkecht, Edward. *The Novels of Henry James*. New York: Fredrick Ungar, 1983.

(투고일: 2023. 5. 22 심사완료일: 2023. 6. 19 게재확정일: 2023. 6. 23)

이원주
소속: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객원교수
주소: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전자우편: princezkitty@nate.com

[Abstract]

Imagination Shown in *The Portrait of a Lady* and
The Ambassadors

: A Quality Required in the 21st Century

Lee, Won-Ju

In the 21st century, characteriz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osthumanism, imagination is required as an essential quality. In fact, the concept of imagination is often ambiguous and confusing due to biases and misunderstandings, requiring redefinition of its meaning. However, Henry James, a literary critic and novelist who engaged in artistic endeavors, exemplified the meaning, value, and importance of imagination through his literary works. To sum up, he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trial and error and experiences through the journeys of the two main characters, who possess a wealth of imagination, in “*The Portrait of a Lady*” and “*The Ambassadors*.” More specifically, Isabel Archer's romantic imagination evolves into a reality-based imagination that leads to confrontation and challenges, while Lambert Strether's suppressed imagination progresses towards empathy, morality, and the ability to integrate. These very point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imagination, a quality demanded in the 21st century. Through the examples of these two protagonists, James presents the field of life as a nurturing ground for imagination and suggests that the greatest freedom humans can enjoy, imagination, serves as an insight for making sound judgments.

Key words: Henry James, Imagination, Trial and error, experience,
Experience based on reality, Empathy, Integration,
Morality